

지역 소식통

부안군보건소,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운영

부안군보건소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기온 상승에 따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증가에 대비하고 식중독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9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온이 상승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이질, 살모넬라균 감염병 등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단체모임·여행·행사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 식중독 등 발생이 많을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갈, 도마 조리 후 소독하고 생선·고기 채소 도마 분리 사용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정읍시는 광업·제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46회째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중부조사 최소화로 사업체 응답부담을 덜기 위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중의 하나로, 7종의 경제통계 조사와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23년 12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101개소)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와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총 13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며, 응답자 편의에 맞는 인터넷·팩스·이메일·전화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병행해 실시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규모 4.8 지진 피해 신속 대응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계화면 주택·공공시설물 피해 현장 등 찾아 애로사항 등 청취

권익현 부안군수가 규모 4.8 지진 발생과 관련해 13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진 피해 파악 및 지원책 건의 등 신속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과 함께 부안군 계화면 주택 피해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을 홍보했다.

또 이상민 장관 및 김관영 도지사 등과 공공시설물 피해 현장인 부안군 삼하수도사업소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진 피해 응급 복구와 주민구호를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관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권익현 군수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경 지진이 발생하자 긴급대피 명령을 내리고 4분 만인 오전 8시 30분 최초 상황관단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속히 대응했다.

회의를 통해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가동했으며 안전안내 문자 및 재난문자 발송, 마을방송 실시, 전광판 송출 등을 통해 피해접수 및 주민행동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어 각 읍면 근무자와 이장단을 통해 피해를 접수했으며 여진 발생에 대비해 주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위치 등

을 홍보하는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위험도 평가 후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후속 점검도 강조했다.

같은 날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한 내소사와 개암사를 찾아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진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여진 등으로 인한 추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마을회관 등 주민대피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지진 피해 상황 파악 및 지원책 마련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매일유업 상하공장, 운곡람사르습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논둑 복원지 보수 활동 진행

매일유업(주) 상하공장 직원과 고창군생태관광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연못 일원에서 논둑복원지 보수 활동을 진행했다. 논둑복원지 보수 활동은 운곡람사르습지 내 논둑복원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총 75m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운곡람사르습지는 폐농경지가 된 후 30여년 동안 사람들이 밭갈이 끊기자, 자연스럽게 생태 회복 과정을 거치며 원시습지로 복원된 곳으로 운곡람사르습지 주변 마을(용계, 독곡, 부귀·안동, 매산, 송안, 호안) 주민들은 이곳의 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논둑복원을 시작한 후 논둑복원지의 유출수가 감소하고 수서곤충, 수서생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반딧불이, 다슬기 등의 생물 개체수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탐방객들에게 습지 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생태교육장으



매일유업(주) 상하공장 직원과 고창군생태관광주인 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은 운곡람사르습지 생태연못 일원에서 논둑복원지 보수 활동을 진행했다.

로도 활용되고 있다.

상하공장 김동현 팀장은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운곡람사르습지 논둑복원 보수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하여 생

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됐다"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장애 치유의 숲길, 정읍의 자연 속 힐링 명소

정읍시 농소동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의 아름다운 경관과 휴양·치유와 같은 숲이 주는 고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치유의 숲길'이 있다. 무장애 치유의 숲길에는 1.43km에 달하는 편백숲 힐링길, 솔향길, 치복차향길 등 산책로 등이 있고, 주민편의를 위한 데크로드, 주차장, 쉼터 등 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무장애 치유의 숲길'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단연 편백숲길이다. 그 이유는 편백숲길에서 맨발걷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는 발바닥의 신경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 배출, 불면증 개선, 치매예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언론에 많이 알려지면서 인근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사랑하는 외



부 관광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13일 정읍농협으로부터 62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았다.

정읍농협,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식... 6210만원으로 고향 발전 기원

정읍시는 정읍농협으로부터 62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13일 전했다.

이날 시와 정읍농협은 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갖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대해 의논했다.

이번 기부금은 5월 한 달 동안 정읍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번 캠페인에서 기부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세 명의 정읍농협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 발전과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정읍농협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정읍농협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화수 시장은 "유남영 조합장과 임직원 여러분이 보여준 기부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정읍농협의 협력 덕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내주시 성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소중한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정읍농협은 지난 2월 고창군 농축협과의 상호기부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자발적인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며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44명, 7540만원의 기부 참여 성과를 올렸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의 대표 특산품인 한우, 홍예향, 태추단감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전체 답례품 제품 규모의 21%를 차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원·상하농원, 고들빼기 기능성 연구 협력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원장 이희권, 이하 연구원)과 상하농원(대표 최승우)이 함께 고창산 고들빼기의 기능성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농생명·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축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창군의 대표적인 향토자원인 고들빼기의 건강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고향 김치산업의 소비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고창군은 김치 원재료인 배추, 무와 함께 고들빼기의 주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들빼기는 건강에 유익한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여 여러 건강 효

능이 알려져 있으나 그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부족했다.

연구원은 동물실험을 통해 고창산 고들빼기 추출물의 면역증진 효능을 검증하여 지역특화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상하농원은 이러한 기능성 자료를 확보하여 제품의 다양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연구원과 상하농원은 지난 4월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향토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